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8.1.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책임지지 않는 ‘자원 도박’? 5조원 날리고 파산 위기”(1.4, MBC)

1. 기사내용

- 광물자원공사는 MB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선도적이었으나 현재 손실이 5조원 넘고 막대한 빚에 파산 위기에 몰렸음
 - 부채비율은 ‘07년 103%에서 ‘15년 6,900%로 상승, ‘16년 완전 자본잠식, 쌓인 빚만 4조원에 육박
- 정부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진 광물공사를 파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정부는 「해외자원개발 혁신 TF」를 구성하여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,
 - 광물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향은 정해진 바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윤정원 팀 장 (044-203-5150)
박이용 사무관 (044-203-5158)